

다윗, 선을 넘은 왕

* 6/22(화) 사무엘하 ③ 11-13장 / 시 51편

사울과 다윗 1-4장	다윗 5-24장
<p>죽음, 사울 가문의 몰락 1-4장</p> <p>이스라엘의 왕 다윗 5장</p> <p>여호와의 궤와 언약 6-8장</p> <p>다윗과 므비보셋 9장</p> <p>▶ 다윗의 죄, 하나님의 용서</p> <p>10-12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다윗과 암몬·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· 나단의 우화· 솔로몬의 출생 : 여디디야 <p>▶ 압살롬의 폭주, 다윗의 도피</p> <p>13장-19:8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암논과 압살롬의 누이· 압살롬의 귀환, 음모· 쫓기는 아버지, 쫓는 아들· 아들의 죽음, 아버지의 애도	<p>다윗의 귀환 19:9-21장</p> <p>다윗의 찬송, 유언 22장-23:7</p> <p>다윗의 용사들 23:8-39</p> <p>다윗의 인구조사, 하나님의 보응 24장</p>

Before 출치며 읽기

정직한 영을
새롭게 하시는
하나님을 묵상하며
통독해 보십시오.

After 묵상하기

나는
<상한 심령>으로
주님 앞에 섭니까?

하나님께서 임계점을 넘게 하셨습니다.

다윗의 한계선을 넘어서게 하셨습니다.

• **다윗의 위치 : 유다의 후손? 다윗의 자손!**

사무엘상/하는 ‘다윗’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

솔로몬을 포함한 유다 왕 21명과 솔로몬 이후

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1세부터 호세아까지의 19명,

총 40명의 왕을 열왕기상/하에서 기록합니다.

그는 40 대 1의 비중입니다.

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을 유다 족속의 조상인

유다로부터 찾는 것이 아니라, 다윗으로부터 찾습니다.

메시아는 ‘다윗’의 자손이시지, 유다의 후손이 아니십니다(마 1:1).

“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(막 10:47, 놀 18:38).”

그는 메시아의 원형입니다.

참고도서

100주년기념 성서주석
두란노 HOW주석
통성경 길라잡이
다윗: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

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를 건지시고,

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그를 높이셨습니다(시 91:14, 삼상 17:45).

‘나’를 건지시고, 높이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.

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,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셨습니다. 만일 부족함이 있었더라면, 다함이 없는 주님께서 더함을 주셨을 것입니다(12:8). 아픔의 모서리가 무뎌진 그가, 그만 선을 넘습니다.

• 다윗의 수치 : 장밋빛 로맨스? 핏빛 스캔들!

다윗의 인기 연관 검색어가 있습니다.

하나는 ‘블레셋의 챔피언’ 골리앗이고, 다른 하나는 ‘우리아의 아내’ 밧세바입니다. 이 둘이 등장한 무대는 일종의 시험장이었습니다. 아직 어리고 무명했던 그는 앞에 나갔습니다. 믿음의 출전입니다. 나이를 먹고 유명해진 그는 뒤에 남았습니다. 주님은 뒷전입니다.

다윗은 군사령관 요압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‘보냈습니다’ (11:1). 밧세바를 알아보고 데려오기 위해 신하를 ‘보냈습니다’ (11:3-4). ‘그’ 소식을 듣고는 요압에게 전갈을 ‘보냈고’, 헛 사람 우리아를 ‘보내게’ 하였습니다(11:5-6). 그의 계략이 완수되고는 사람을 ‘보내어’ 밧세바를 데려왔습니다(11:27). “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.” 그는 선을 넘었습니다. 결국,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‘보내셨습니다’ (12:1).

“이가 그니…(삼상 16:12).” 여호와의 주목을 받은 그가, “당신이 그 사람이라(12:7).” 나단의 지목을 받습니다. 여자를 범하고, 그녀의 남자를 죽인 건 표면적인 죄입니다. 실질적인 죄는 하나님을 모독한 것입니다. 다윗이 하나님 앞에 훌로 서, 우슬초로 정결함 받기를 사모합니다(시 51:7).

• 다윗의 통치 : 비탈진 오르막길? 가파른 내리막길!

죄가 아무리 크다 해도, 하나님의 은혜보다 크진 않습니다. 십자가의 사랑이 모든 것을 덮습니다. 그의 죄는 용서를 받았습니다(12:13). 그러나 죄의 열매가 인생의 뒤안길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.

다윗의 통치가 하강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.

이후 그는 죄의 여파로 인해, 여러 견디기 힘든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. 어린 양을 네 배로 갚아 주어야 한다는 그의 판결대로, 그의 네 아들 -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난 아들, 암논, 압살롬, 아도니야-이 죽습니다(12:6). 순간의 잘못된 판단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져, 그는 수치를 당합니다.

아침 안개 눈 앞 가리듯, 마음에 숨긴 죄는 우리의 눈을 가리웁니다. 그러나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순 없습니다.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눈 감아 주시진 않습니다. 정한 마음을 창조하십시오.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십시오. 주님께서 상한 나의 마음을 감싸주십니다. “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으로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(시 51:17).”